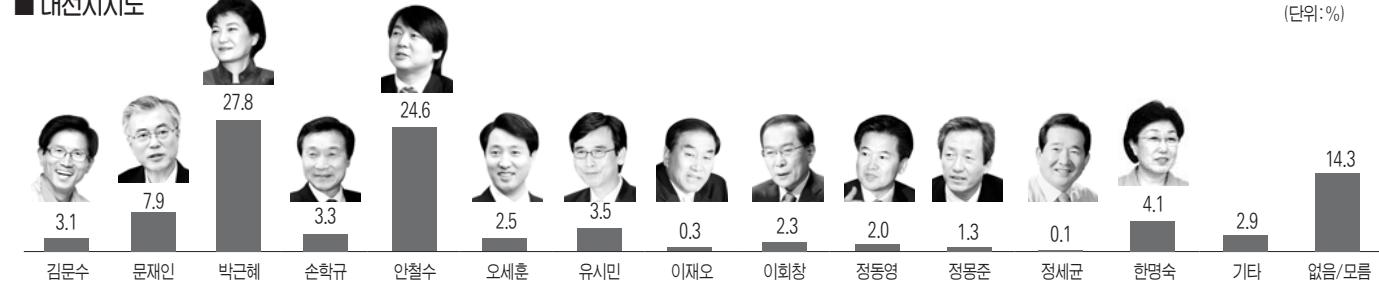


韓新協 신년 공동 여론조사

安, 광주·전남북 압도적 지지 속 서울·경기서도 선두

■ 대선지지도



'잠룡' 중 문재인·한명숙 지지율 다소 높아

대선후보 다자 대결

현 정치권 인물 중 차기 대선 후보 다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8%의 지지율을 얻어 안철수 서울대 응집과학기술대학원장(24.6%)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재인 7.9% ▲한명숙 4.1% ▲유시민 3.5% ▲손학규 3.3% ▲김정은 3.1% ▲오세훈 2.5% ▲이희창 2.3% ▲정동영 2.0% ▲정몽준 1.3% ▲이재우 0.3% ▲조세균 0.1% 순이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14.3%로 부동층도 상당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43.9%)과 대구(41.2%), 충북(40.3%)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전북(4.1%)과 광주(4.8%)·전남(6.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안 원장은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보인 가운데 전북(33.8%)과 경북(33.3%), 광주(30.6%)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고, 울산에서만 8.9%로 한 자릿수 지지를 보였다.

성별로는 박 위원장이 남성(25.4%)에 비해 여성(30.1%)의 지지율이 높은 반면, 안 원장은 남성(25.4%)과 여성(23.8%)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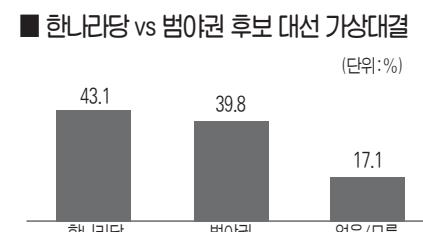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박 위원장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32.7%, 46.3%를 얻어 안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 원장은 20대(34.6%), 30대(29.7%), 40대(27.9%)에서 박 위원장을 크게 앞질렸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대선 후보 중 안 원장이 각각 30.6%, 24.3%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다. 광주에서는 안 원장에 이어 이희창(12.9%), 문재인·정동영(각 6.5%), 유시민(3.2%) 순이었고, 전남에서는 안 원장 다음으로 문재인(21.6%), 손학규(9.5%), 한명숙(8.1%)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와 대결, 박근혜 근소한 차 앞서

1대 1 가상대결



는 안 원장이 남성(50.2%)과 여성(45.9%)

에 고른 지지를 얻은 반면 박 위원장은 남성(37.4%)보다 여성(41.4%)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연령별로는 안 원장이 20대(62.3%)와 30대(55.3%), 40대(56.1%)에서, 박 위원장은 50대(46.8%)와 60대 이상(60.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경북(53.2%)과 강원과 경남(각 50%)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으며,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48.0%, 46.3%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안 원장은 전남(74.3%)과 광주(71.0%), 전북(63.5%) 등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 서울(52.0%)과 경기(47.8%) 등 수도권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박 위원장과 범야권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승부가 엇갈렸다.

안 원장이 박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지만, 범야권 단일후보는 수도권에서 박 위원장에게 지지율을 많이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신당, 50·60대 제외 전연령층 지지

안철수 신당

안철수 원장의 제3당이 창당될 경우 정당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안철수 신당’ 창당시 정당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29.2%로 한나라당(24.1%)을 앞질렀다.

이어 ▲민주통합당(16.8%) ▲통합진보당(3.4%) ▲미래희망연대(1.5%) ▲자유선진당(1.2%) ▲진보신당(0.3%) ▲창조한국

당(0.1%) 순이었다.

안철수 신당이 뜰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30대(39.3%)와 40대(36.1%)가 가장 높았다. 20대와 50대도 20%대를 훨씬 넘는 등 5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북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전북(40.5%)과 광주(40.3%) 지역이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전북에서 신당

에 대한 지지도가 의외로 높게 나타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이 높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광주와 전북의 지지도는 각각 32.3%, 37.8%로, 신당의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지역 응답자 41.9%는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민주통합당(41.9%)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고, 이어 35.1%가 신당을 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중·동·한국 대선 여론조사 보니

안철수, 양자대결 때 박근혜에 모두 우세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31일 일제히 밝힌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응집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다자 대결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안 원장이 47.6%, 박 위원장이 41.7%를 기록했고,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안 원장 49.6%, 박 위원장 44.1%로 집계됐다.

또한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48.0%, 박 위원장 38.5%로,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공동 조사에서는 안 원장 49.7%, 박 위원장 42.5%로 각각 조사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지난 17일 중앙일보와 YTN,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안 원장(49.4%)이 10%포인트 차로 박 위원장(39.4%)을 앞선 점을 감안하면 보름 새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12월 19일 발표)에 따라 안보·남북관계 이슈가 박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11명의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박 위원장 31.5%, 안 원장 23.8%, 문 이사장 7.3%, 이희창 전 주선진당 대표 2.7%,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2.6% 등의 순이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의 13명 여야 잠정 지지를 조사 결과 박 위원장 31.9%, 안 원장 22.4%, 문 이사장 5.8% 등이었고,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박 위원장 31.9%, 안 원장 23.9%,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또한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48.0%, 박 위원장 38.5%,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49.7%, 박 위원장 42.5%로 각각 조사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이 34.9%로, 한나라당(32.7%)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아일보와 리서치엔리서치 조사에서는 안 원장 31.9%, 박 위원장 29.3%, 문 이사장 7.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2% 등이었다.</p